

땀질 예산에 ... 광주 트라우마센터 내년 걱정

市, 국비지원 끊겨 운영비 8억8000만원 추경예산 반영

출범 5년째 국비 지원이 끊겨 운영 위기를 맞았던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급한 불을 끄게 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8억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트라우마센터는 올해 운영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3년간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지난해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정신보건 시범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끊겼다. 센터는 일단 올해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땀질식 예산'으로 내년 운영비를 다시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시는 용역을 거쳐 단기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센터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앞으로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확보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린이날 가족문화축제 '2016 어린이날 가족문화축제'가 열린 8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라퍼 커션 공연에 참가한 단원들이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다.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친환경디자인박람회·모터스포츠 한마당 대박 황금연휴 기간 관람객 21만명·5만명 다녀가

전남도가 국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금 연휴기간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와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행사가 전남 일대에서 잇따라 열리면서 행사 현장에 연일 수만 명의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8일 세계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막일인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모두 21만4000명이 박람회장 찾자 전체 목표 관람객 88만 명의 24%를 달성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는 1만7000명으로 목표 관람객 4만4000명의 39%를 이룩

했다. 지난 5일엔 예초 예상 인원보다 두 배 이상 몰렸으며 주제공연인 하늘공연 퍼펙트는 뮤지컬·년별별 시리즈·EBS 모 여러 디동등 높은 질 높은 공연으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개막 이틀째인 6일엔 한전 한빛홀에서 구글 선정 세계 최고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등 세계적 석학의 강연이 이어졌는데, 대학생·일반인 등 1000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이번 박람회는 29일까지 나주 전남농업기술원과 빛가람혁신도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에서 열린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행사엔 지난 4일간 4만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선 슈퍼카(람보르기니·페라리 등) 택시 타임과 가상레이싱·레이싱 장비체험 등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행사들이 선보여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일엔 국내 100m 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 선수(7초739)와 여성 카레이싱 권봄이(7초544)가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로 70m를 달려 승부를 겨루는 '사람과 자동차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15일엔 올해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AFOS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린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전남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방사능 오염 검출 안돼

전남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3년부터 매년 전남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한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은 단 한건도 없었다. 2013년 10개 품목 21건, 2014년 29개 품목 168건, 2015년 27개 품목 303건 모두 방사능이 미량도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조사한 9개 품목 16건도 모두 방사능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

생한지 5년이 다됐는데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전남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과 무관하다"며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도는 방사능 조사와 별도로 약품남용 등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99%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6건 중 부적합 6건, 2014년 925건 모두 적합, 2015년 1천 65건 중 부적합 3건 등으로 전남이 청정바다임을 입증했다. /이종행기자galee@

주목! 20대 국회 광주·전남 새얼굴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거센 녹색바람의 실체는 호남주도 정치구도 만들자는 갈망"

4·13 총선에서 20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광주·전남지역 새내기 당선인들은 모두 8명(광주 3명, 전남 5명)이다. 전체 의석(18석)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들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일보는 새내기 당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포부와 비전,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 등을 조명해본다.

김경진 국민의당 당선인(광주 북갑·50·사진)은 20대 총선에서 호남 최고의 득표율(70.8%)로 당선됐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득표율이기도 하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지난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7년 10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그는 공안검사 시절 노동, 학원, 사회 등 시대 전반의 문제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결단을 내린다. 하지만 기득권의 벽은 높았다. 지난 18대와 19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서 부문을 삼켰다. 결국, 삼수 끝에 20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현실 정치에 진입하게 됐다. 지난 8년간의 외신상담은 그의 정치적 내공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남 민심이 만들어낸 '녹색 바람'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권에서는 물론 야권에서도 호남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원동력이었다. 야권에서 호남 정치권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호남 인물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이 주도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보자는 갈망이 담긴 것이



'호남 세속화' 지적은 영남 패권주의 시각 미방위에서 상임위 활동 과학기술 발전 힘 보태고파

다. 물론, 기본적인 바탕은 야권의 각성과 변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길을 창출 하자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호남이 '세속화' 됐다 지적이 있다. ▲호남의 선택을 세속화로 정의하는 것은 영남 패권주의적 시각이다. 영남 정치권은 그동안 뻔뻔스러운 정도로 그들의 이익에 충실했다. 호남이 정당한 대우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선택에 나선 것에 대해 세속화라고 표현하는 것

은 호남 민심을 비하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영남은 그동안 너무나 세속화된 것은 물론 사실상 패권주의가 고착화됐다. 영남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영남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히려 호남의 선택이 정치권에 각성을 요구하게 된 셈이다. -호남의 고립화라는 말도 있다. ▲호남 민심은 호남 차별의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고립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호남 정치권에 대한 평가를 하다면 ▲지역에서 여당의 위치에 안주하며 지역 정치에 매몰됐었다. 중앙에서는 치열한 도전과 응전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호남 정치권은 지리멸렬했다. 이제 적극적 소통과 협조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숙제다.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과학 관련 책도 두 권 썼다. 과학 기술 발전에 일조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기부가 폐지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신에 과학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과학은 미래 먹거리 창출은 물론 사회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천이다. -시대의 당면 현안은. ▲서민 경제가 파탄 나는 등 보수 정권이 나라를 맡아먹기 직전인 상황이다. 법인세 인상과 산업 구조 개혁 등이 시급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 사회, 정치 전반의 시스템 정비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실용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흥군 금산면 신평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마을 해수부, 3년간 15억 투입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16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고흥군 금산면 신평마을이 선정됐다. 신평마을에는 2018년까지 3년간 15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8일 "해수부 전국 공모사업

에 고흥군 금산면 신평마을 등 총 5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지역 어촌 특화자원을 활용해 '1차 산업(어업생산)×2차 산업(가공)×3차산업(판매, 관광)'을 융합·연계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고흥군 금산면 신평마을은 지역 생산물인 미역, 김, 매생이 등을 소재로 가공 시설, 판매장,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여수 안포마을, 해남 송호·종리마을에 이어 올해 고흥 신평마을이 새롭게 선정됐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시범 사업을 성공시켜 어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경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축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결제(X), 결제(O)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